

## 출판계 일 거들며 분주했던 1980년대

책으로 쓰는 자서전 — 21

김병익 | 문학평론가 · 인하대 국문과 초빙교수

“단행본 출판인들 10명 안팎이 어우러진 수요회는 당시의 출판계 사정을 보여주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7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의식 있는 출판인들의 공동 관심사를 일거가기 위해 당시 가장 시급했던 단행본 출판의 홍보를 도왔다. 신문에 ‘조인트’ 광고를 내고 신문에 서평란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이뤄진 것이 ‘오늘의 책’ 선정이었다.”

1980년대, 그러니까 나의 40대는 글을 읽고 쓰고 책을 만드는 등의 내 개인적인 일로만 멈출 수는 없었다. 밖으로, 그래서 출판계나 문단 쪽의 일들로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물론 내가 정력이 남아돌아서가 아니었다. 이런저런 요청을 사양하기가 힘들었고 또 그때의 사정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방관해서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탓이었다.

1976년인가 서울예술전문대에 창설된 문예창작과에 과장으로 취임한 시인 정현종이 내게 한국문학 특강이란 제목으로 출강을 요청했고 그래서 15년 이상 계속되는 이 강사 시절에 나는 그때 진행되는 우리 문학의 양상들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한편 문예사조 강의를 위해서는 새 공부를 하기도 했다. 지금 문학과지성사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시인 채호기씨는 이 문창과의 첫 제자라면 제자랄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됐고 후에 시인, 소설가로 문단에 데뷔하는 술한 서울예전 졸업생들을 이때 알게 됐다. 나는 늘변이고 말하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이 강사 시절의 강의에는 열심이었고 내 나름대로 여러 소득을 얻었지만, 50대 중반에 이르면서 새로운 진전 없이 비슷한 내용으로 지껄인다는 자괴감과 강의에 대한 피로로, 과장인 오규원에게 간곡하게 부탁해 강사 시절을 ‘졸업’ 할 수 있었다.

출판계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1980년

대 초 이기웅씨가 천거해서 출판협회 이사라는 직함을 가졌으면서도 출판협회의 구성과 개개 출판인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또 관심도 별로 키우지 않았다. 민영빈씨와 임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던 시절 상무로 위촉됐지만 별다른 열성이 일지 않아 중도에 사퇴하고 말았다. 임인규씨는 내게 부회장을 제의한 적도 있지만 나는 간곡히 사양했다. 회사나 내 개인적인 일을 희생하고 싶지도, 할 수도 없었지만 거대한 출판협회의 일을 나로서는 감당할 자신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단행본 출판인들의 모임인 ‘수요회’에는 비교적 열심이었다.

### 수요회의 노력으로 ‘오늘의 책’ 선정해

민음사 박맹호 사장을 필두로, 지식산업사 김경희, 열화당 이기웅, 한길사 김언호, 전예원 김진홍, 그리고 창작과비평사, 현암사, 까치 등 단행본 출판사 사장 10명 안팎이 어우러진 ‘수요회’는 어떤 형태로든 당시의 출판계 사정을 보여주는 모임이었다. 그것은 우선 전집이나 참고서의 출판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출협에 대해 단행본 출판사들이 가진 미흡감을 채우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모임이었고 그 모임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197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의식 있는 출판인들의 공동의 관심사를 일거나가기 위해 무언가의 일을 해야 할 것이었다. 그 무언가의 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단행본 출판의 홍보였고 격려였다. 그래서 수요회 멤버들이 제휴해서 신문에 ‘조인트’ 광고를 내기도 하고 문공부와 접촉하며 출판인들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신문에 서평란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이뤄진 것이 ‘오늘의 책’ 선정이었다. 신문들은 출판 광고에서도 까다로웠지만 지면에서는 더욱 인색해서 서평은 물론 신간 소개란을 얻기도 참 힘들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 우리 출판계는 무게가 크고 계몽적이며 우리 문화와 지식 사회의 역동적인 활기를 보여주는 좋은 책들을 활발하게 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문은 무기력했다. 그 무기력과 몰상식이 어느 만큼이었느냐 하면, 서평란을 만들어달라는 출판계의 권고에 신문발행인협회는, 그렇다면 그 난을 만들 경비를 출판계가 지원해달라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수요회는 우리 나름으로 좋은 책을 선정해 저·역자를 기리며 독자들에게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후에 정리된 《오늘의 책 : 1983년~1987년》을 펼쳐보니 ‘오늘의 책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도서가 519종이었다. 이중한을 간사로 한 선정위원은 변형운 · 강만길 · 유종호 · 조요한 · 김용준 · 김진균 · 진덕규 등 우리 학계의 진보적인 중진 학자들이었고 1983년 여름에 첫 선정된 책은 한영우 교수의 《조선 전기 사회경제 연구》(을유문화사) 등 28종이었다. 계절별로 18차로 이뤄진 이 선정 도서에는 상금은 물론 없고 듬직한 손에 책이 쥐어져 있는, 조각가 심정수씨의 훌륭한 청동 조각품을 모뉴망으로 전달했다.

나는 운영위원으로 이 선정 작업을 뒷바라지하는 일에는 주도적인 열성을 부렸고, 더 나아가, 《동아일보》 선배 기자로서 당시 문공부장관으로 재직중이었던 이진희씨와 수요회를 연결해 회식

을 하는 자리에서 서평 전문 잡지의 등록을 얻어 내는 데 성공했다. 《오늘의 책》을 제호로 한 이 계간지는 논의 끝에 한길사에서 간행을 맡기로 했고 한길사는 계간지 부재의 그 시대에 의식 있는 잡지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수요회는 1980년대 말경, 시대상의 변화에 얽혀 그 잡지와 더불어 해체됐다.

이즈음 나는 출판계의 '대부'인 정진숙 회장의 부름을 받고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의 직책을 권고받았다. 이 연구소는 학계의 갖가지 연구 성과들을 출판하면서도 정작 출판 문화 자체에 대한 연구 개발이 없다는 한심한 현실을 안타까워한 임인규 출협회장이 만든 것으로, 그가 국회로 진출하면서 정회장이 나를 그 후임자로 결정한 것이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니와 '연구'라는 데 이끌려 그 직책을 맡았다. 그때가 1988년 9월이었고 약 30개월의 재임 기간 중 빈약한 재정을 키우기 위해 방송광고공사에 지원금을 신청해 1억원을 배정받는 데 성공해서 그걸 기금으로 반년간지 《출판연구》를 창간할 수 있었다.

### 가장 즐거웠던 《출판저널》 주간 일

내 임기가 그렇게 짧았던 것은 역시 정진숙 회장의 판짜기 작업 때문이었다. 《오늘의 책》이 사회과학의 학술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 것이어서 대중적인 출판 전문지가 필요하다는 데 착안해서 한국출판금고의 사업으로 격주간 《출판저널》을 간행하게 됐는데, 그 주간으로서 격조 높으면서도 다양한 출판 뉴스를 요령있게 처리해 잡지의 품위를 한껏 높여온 이기웅씨가 출협 부회장에 출판문화단지 이사장, 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의 격무를 견디지 못해 물러나면서 내가 그 주간으로 추천된 것이었다. 이미 그 틀은 만들어져 있고 기자들도 능력 있고 적극적이어서 내가 할 일이란 편집회의를 주재하는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28개월이란 역시 길지 않은 재임 기간 중 나는 이 일을 편하면서 재미있게 했다. 내가 출판계에서 일한 것 중 가장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 것이 이 《출판저널》 주간 일이었다고 당시의 멤버들은 지금도 가끔 만나 마치 동창회 하듯 지난

일을 회상하곤 한다.

출판계 일을 하면서 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989년 가을 국제도서전 참가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일이었다. 우리에게 공포 없이는 생각할 수 없었던 가장 적대적인 소련 여행은 나오서는 꼭 해보고 싶은 것이었고 그래서 약간의 경제적인 무리를 무릅쓰고 20여 출판인들 일행에 끼었던 것이다. 물론 2년 전 보스턴의 동양학 도서 전시회 때 처음으로 미국 본토를 여행한 적이 있었고 그보

다 앞선 1981년에는 스톡홀름과 헬싱키의 한국 문학 포럼 참석차 비로소 유럽 여러 나라들을 구경했고 이듬해에는 문예진흥원의 정책으로 문인들의 해외 방문단에 끼어 인도와 요르단,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프랑스·이탈리아로 나들이를 했지만 미국이나 서구는 친숙한 문화였고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소련이야말로 관심과 기대가 큰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의 소련은 고르바초프가 대개혁을 추진하던 참이어서 미국과 함께 20세기의 이 세계를 아우르던 소련의 비옥한 문화와 빈약한 현실의 대조적인 장면들이 강한 충격으로 내게 다가왔다.

### 원시 문명으로의 여행, 기록으로 남겨

나의 해외 여행은 1990년대 들어와 더 빈번해져, 한독문학 교류 행사와 한일문화교류 행사로 독일과 일본을 여러 차례 가게 됐지만 역시 내게 흥미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소련에 이은 중국과 아프리카, 그리고 두차례 방문한 페루 같은 경제적 후진 지역이었다. 나는 원시인들로부터 한때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한 이들 나라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문명과 삶을 보았고 그것은 나와 우리의 세계와 그 문화를 대조하며 인간의 근원적인 형태에 대한 성찰을 재촉했다. 나는 스스로 찾아다니는 여행자는 아니면서 낯선 풍물들에 대한 호기심은 컸고 구경한 것들을 메모하거나 하지 않는 대신 버스와 비행기 속에서 그것들을 속으로 음미하기를 즐기는 편이었다. 그리고



출판계 일을 하면서 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989년 가을 국제도서전 참가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일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고르바초프가 대개혁을 추진하던 참이어서 소련의 비옥한 문화와 빈약한 현실의 대조적인 장면들이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모스크바 국제도서전에 참가했을 때 레닌 상 앞에서 출판인들과 함께 한 모습(맨 왼쪽).

그러기에는 누구나 알고 또 보고 익숙한 선진 문화권보다는 원시적이거나 이질적인 문화권이 더 좋은 재료들이었다.

이런 여행들에서 돌아오면 나는 나의 느낌과 생각들을 정리해두고 싶었다. 그래서 쓰게 된 것이 1997년에 책으로 묶은 《페루에는 페루 사람들이 산다》(문화과지성사)의 여행기들이다. 우리와 다른 문물들에 대한 사유를 자유롭게 펼치며 고백한 이 에세이들은 내가 드물게도 청탁받지 않고 쓴 글들이고 그래서 잡지에 게재를 부탁하는, 나답지 않은 방식으로 발표됐지만, 지금도 나는 이 글들을 꽤 좋아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고 음미한 페루며 케냐, 소련과 중국의 자연과 문화, 인간과 삶의 방식은 내게 또 하나의 거대한 책처럼 읽혀지는 것이었으며 그 책은 생동하며 살아 있고 유구한 인류의 역사를 흔적으로 내장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게 슬픔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는 것이었다. 문자로 만들어진 책 대신 실체로서 존재하는 세계와 인간들을 직접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즐거움을 나는 지천명의 50대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